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제주이전 사옥

GEPS(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Headquarter Office

당선작_최기철 정희원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888번지 외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관녹지
 (저촉)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9,560m²

건축면적 4,681.27m²

연면적 14,969.77m²

건폐율 23.93%

용적률 49.31%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발주처 조달청

설계담당 토문건축_이수열, 박열, 고문영, 김재진,

김홍배, 황정운, 이진이, 신진호

해마건축_심미진, 김승은

제주혁신도시 '삼다시티'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은 공단의 비상하는 새와 제주의 자연이 함께하는 「솟아오름」, 「강아오름」, 「여우오름」의 3가지 흐름을 개념으로 계획했다.

「솟아오름」은 성산일출봉을 모티브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며, 「강아오름」은 제주의 풍요로운 곡선이 대지로부터 건물을 휘감아 올라 비상하는 공단의 정신을 상징한다. 또한 「여우오름」은 제주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공단의 어울림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실현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은 '경사지', '바람', '향과 조망', 그리고 혁신도시의 '녹지축'이라는 대지의 주요한 4가지 특성을 매스와 배치계획에 반영했다.

도시와 공원을 대지 내로 끌어들여 다양한 외부공간을 기능과 위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러한 접근은 입체적 로비, 훔 계획을 통하여 통합된다. 또한, 전면진입광장을 통해 외부에 개방성을 가짐과 동시에 옥상정원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프로그램조닝은 보안을 고려하여 포디움과 상층부로 구분하여 계획했다. 포디움은 대민, 교육시설, 복리시설 등 업무지원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는 순수업무공간으로 구성된다. 집중코아를 사용하여 최대한의 업무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옥상정원과 테라스를 가진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한 건물로서, 창면적비 50%미만 적용을 통한 건물 단열성능 강화, 구조와 차양, 냉각, 환기시스템이 통합된 저능형 외피, 자연환기 및 휴게를 위한 에코傻트, 복사 열부하 감소를 위한 옥상녹화를 적용했다. 또한, 태양에너지와 지열냉난방시스템, 우수를 재활용한 수순환시스템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을 이용하여 미래지향적 공단이 되도록 계획했다. ■



